■ 미리보는 2008 프로야구 <2> 루키! 이들을 주목하라

KIA 나지완 "신인왕 넘보지 마!"

시범경기 내내 4번 타자…SK 모창민과 경쟁

마운드에선 LG 정찬헌·두산 진야곱 등 가세

KIA 나지완

"양준혁과 박용택을 잡겠다" "오승환의 공을 쳐내겠다."

2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프로야구 미디어 데이에서 나지완을 비롯한 8개 구단의 파릇파릇한 신인들이 올 시즌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신인왕 경쟁을 시작했다.

올 시즌은 어느 해보다도 알찬 신인선수들이 많아 벌써부터 '신인왕'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다. 신인선수들은 팬들의 기대에 부흥해 지난 시범경기에서 투·타 모두 맹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타석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이는 KIA의 '아기 호랑이'나지완이다. 겁없는 타격을 선보인 나지완은 시범경기 내내 4번 타자를 꿰차며 장성호-최희섭의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막강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했다.

나지완은 미디어 데이 행사에 KIA대표로 참가해 특급 마무리로 꼽히는 삼성 오승환의 공을 쳐내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KIA와의 시범경기 때 오승환이 마운드에 오르지 않아 둘의 대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3월 29일 KIA와 삼성과의 개막전이 예정된 만큼 팬들은 잘하면 나지완의 큰소리를 검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지완은 단국대에 재학 중이었던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제 37회 야구월드컵에서 프로 선수들을 제치고 4번 타자로 나서 맹활약을 펼쳤던 소문난 거포다.

포커 페이스인 나지완은 악바리 근성으로 전지훈련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신인답지 않은 배포와 근성으로 시범경기를 주도했다. KIA의 우타거포의 고민을 씻어준 나지완은 신인으로 개막전 4번 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내친김에 2001년 김태균 이후 첫 타자 신인왕에 도전한다.

호타준족으로 꼽히는 SK의 모창민도 나지완과 타석에서 라이벌 대결을 펼친게 된다.

마운드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이는 광주일고 출신의 LG 정찬헌. 시범경기 12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인 정찬헌은 1군 합류 보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팀의 5선발로도 거론될 만큼 두각을 나타냈다.

정찬헌은 이날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거포 "양준혁과 김동주에게는 한 방도 맞기 싫다"며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정찬헌과 함께 마운드에서 맞수로 꼽히는 선수는 두산의 진야곱과 최원제가 있다.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가 일품인 진야곱은 좌완 투수로 두산 마운드 운영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승부욕이 강한 진야곱은 "시범경기에서 볼넷과 안타를 허용했지만 양준혁과 박용택을 잡겠다"며 당찬 모습이다.

지난해 모교 장충고의 전국대회 2관왕을 이끈 우완 최원제도 신인왕 경쟁에 가세했다. 시범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1피홈런, 3피안타를 허용했지만 나름대로 합격점을 받았다.

라이벌 정찬헌의 호투에 자극받은 최원제는 "변화구를 연습해서 꼭 정찬헌을 이기겠다."며 신인왕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팀의 마스코트로 떠오른 김선빈과 날렵한 최용규도 맹활약을 펼치며 KIA 팬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고 있다. 포부 당당한 신인들의 경쟁은 29일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G 정찬헌

두산 진야곱

SK 모창민

구단별 전력 분석

SK

마운드 보강 2연패 도전

'공공의 적'

지난해 창단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SK는 올 시즌에도 우승후보로 꼽히며 나머지 7개 구단의 견제를 받고 있는 '공공의 적'이다.

비록 시범경기에서는 4승 8패로 7위에 그쳤지만 여유가 넘친다. 팀의 에이스 김광현과 철벽 마무리 정대현이 올림픽 대표팀에 다녀오면서 부상 등으로 시범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시즌 경기에 나서는데 무리가 없다.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레이번도 건재하며 새 용병 투수 쿠비얀도 시범경기에서 14와 3분의 2이닝 동안 13피안타, 13탈삼진으로 2.45의 방어율을 유지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좌완 이승호도 합류하고 조웅천도 허리를 지키고 있어 투수진이 든든하다.

이호준, 정경배, 최정 등 주전들이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지만 촘촘한 선수구성을 해온 만큼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시즌 운영이 예상된다.

두산

소장파 기용 뛰는 야구로

'두산 육상부' 건재.

지난해 준우승팀 두산은 김경문 감독의 부재 속에 시범경기 4승5패 1무로 5위에 그쳤다. 하지만 많은 감독들은 두산을 2강 팀으로 손꼽는다. 특급 신인 좌완 진야곱의 젊은 패기와 함께 빅 리거 김선우의 노련미가 어울러지면서 마운드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랜들과 레스와 같이 검증된 투수 용병들도 마운드의 높이를 높였다. 군에서 복귀한 이재영과 이재우도 예전의 기량만 선보인다면 거침없는 질주가 예상된다.

베테랑 안경현과 홍성흔의 기용 논란 속에 팀 분위기가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전지훈련 내 젊은 선수들 위주로 세대교체도 이루었다.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발을 지녔다는 이종욱, 고영민, 민병현 등 '두산 육상부'의 기세도 여전하다. 주전과 백업의 기량 차이가 적고 공·수·주가 지난해 보다 한층 강화돼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성중 이한송 3관왕…MVP '번쩍'

전국 춘계역도 남중부

이한송(보성중)이 제56회 전국춘계역도경기대회 중등부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상을 차지했다.

이한송은 25일 보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중등부 최중량급(+94kg)경기에서 인상 110kg, 용상 140kg 합계 250kg을 들어 올려 2위 이상명(합계 200kg·치악중)을 가볍게 따돌리고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이한송은 또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이재황(동진중)이 세웠던 종전 인상 대회 기록(108kg)과 김준선(광주체육중)이 수립한 합계 최고기록(249kg)도 잇따라 갈아치웠다.

중등부 94kg급에서는 이창준(고성중)이 합계 215kg으로 1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26일(수)

▲춘계 남녀 중고 배구선수권 여고부 결승(14 : 00·SBS스포츠)

▲07/08 V리그 챔피언 결정 3차전〈흥국생명 : GS칼텍스〉(14 : 10·KBS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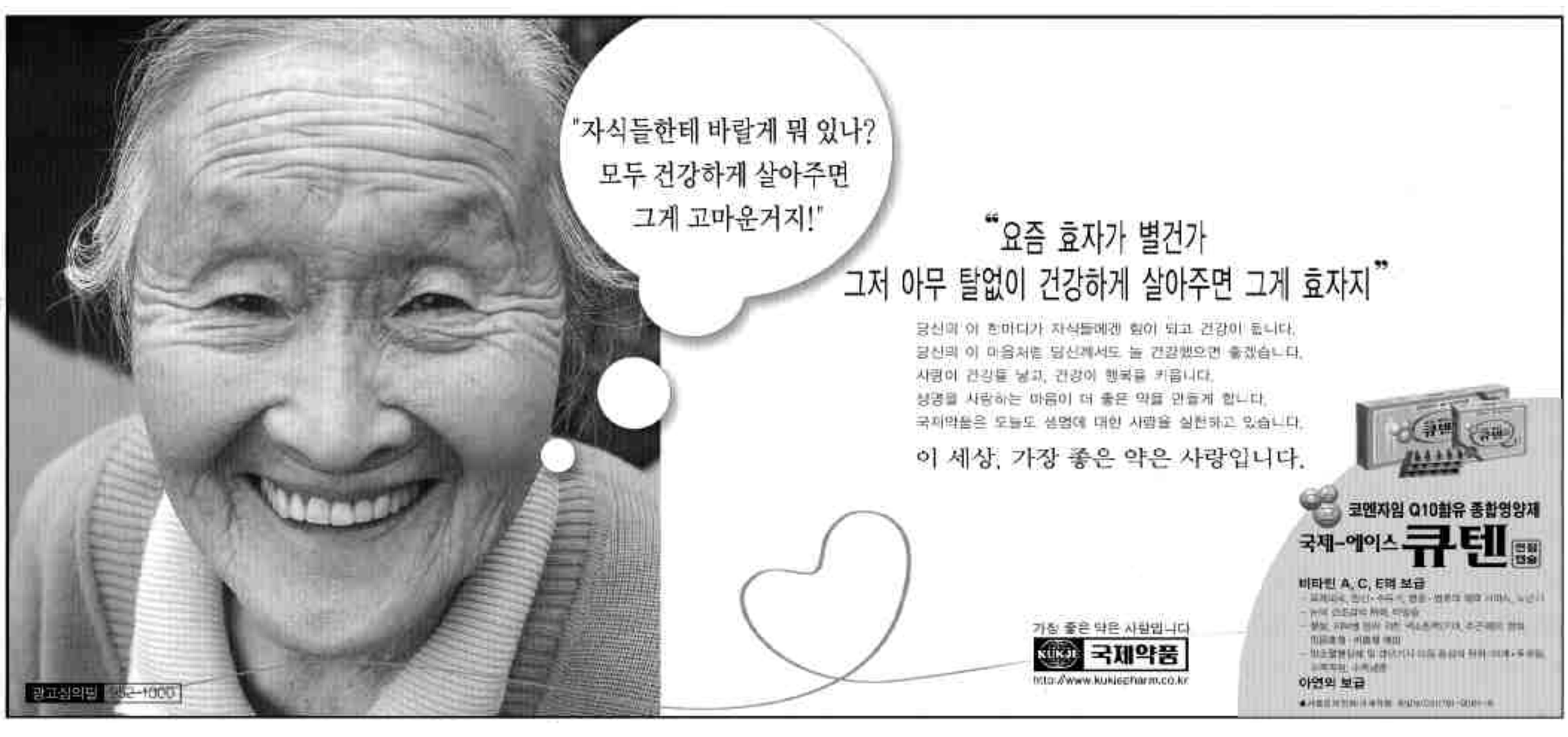
▲2008 태비스톡 컵 둘째날(18 : 00·SBS골프)

▲07/08 V리그 남자부〈LIG손보 : 현대캐피탈〉(18 : 30·KBS N SPORTS)

▲2008 메이저리그〈보스턴 : 오클랜드〉(18 : 40·XPORTS)

▲2010월드컵 3차 예선〈대한민국 : 북한〉(19 : 30·SBS)

27일(목)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친선축구〈이집트 : 아르헨티나〉(02 : 50·SBS스포츠)

▲브라질 축구 국가 대표 월드투어〈스웨덴 : 브라질〉(05 : 00·SBS스포츠)